



이 자료는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원장 채수운) 축산교육센터가 개설했던 '사슴 아카데미' 교육자료이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양록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사슴의 사양 및 질병관리 ▲녹용의 유통동향과 농가대응방안 ▲판매 및 경영관리 우수농가 사례발표 ▲사슴의 개량이란 주제로 총 5명의 강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미 발표된 내용도 다수 있지만 농가에서 참고삼을 만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금번호에는 전병설 한국양록축협 조합장이 발표한 '국내 양록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과 김찬규 역촌동물병원장의 '사슴의 사양 및 질병관리' 에 대한 강의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국내 양록산업 현황 및 발전전망

전병설/한국양록축협 조합장

1992년 사슴수입 자유화를 맞이하면서 한국 양록업 상황은 매우 비관적인 방향으로 전망되었다. 국내보다 훨씬 값싼 외국사슴이 무제한 수입되어 사슴값 폭락 사태가 우려되고, 자육분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농가들로서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간 3천여두 내외의 외국 대형종 사슴이 국내로 수입돼 사슴값을 당시의 절반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사슴 값이 적정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수입사슴도 가격우위를 보장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입은 중단되었다. 또한 국내 양록인들의 시각도 분양위주의 수익성 추구에서 생산물 판매 및 생산비 절감

으로 전환되었다. 또 수익성이 없는 저능력 사슴은 과감히 도태되었다. 결국 안정적인 양록발전의 본궤도에 진입하는 계기를 사슴수입자유화 충격 속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와함께 양록업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전망이 자리잡게 됐다. 양록인 스스로 갑작스런 사슴수입개방의 혼란에 잘 대처함으로써 외국 양록업과의 경쟁우위 자신감을 가지게 됐던 것이다. 특히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양록업이야말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맞서며 미래의 우리농촌을 지켜줄 경쟁력 축종일 수 있다는 기대로 바뀌게 되었다. 양록인 스스로는 물론 정부도 과거 일부계층의 보신을 위한 부업축종이라는 이미지에



서 축산농가의 소득품목으로 양록을 평가하게 됐다.

한국 양록산업의 가능성은 다음 몇 가지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1) 녹용 잠재수요

녹용은 최근까지만 해도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이용하는 한약재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비싼 처방비용이 포함된 값으로 녹용을 이용하다보니 일반 서민들이 복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녹용을 직접 농가에서 구입, 가정에서 손쉽게 달여 복용하는 추세로 바뀌어 소비자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게 됐다. 이는 그 동안 신비로운 효능을 가진 명약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국민들이 누구나 녹용을 복용하려 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극히 산술적 계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유아 등을 제외한 인구 2천만명이 1년에 1회씩 녹용을 먹는다고 하면 연간 1억냥(약3백76만kg)의 녹용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녹용은 고작 13만kg에 불과하고 한해동안 수입된 녹용의 양도 생녹용 기준 34만kg에 불과하다. 무한한 잠재수요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녹용의 신비스런 효능이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 의해 속속 입증되면서 녹용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이 개발되고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특히

녹용의 성분을 농축해 이용하는 캡슐제제를 비롯, 화장품과 비누 등에 이르기까지 녹용의 수요가 급속히 다양화 돼가고 있는 것이다.

2) 녹용시장 여건

우리나라는 세계 녹용 소비량의 80%를 소비하는 최대 녹용 소비국이다. 앞으로의 잠재수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같이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양록업의 최대 잇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녹용은 옛 한방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자연산 사료섭취로써 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생산된 녹용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인구 20억을 보유한 인접국 중국의 경제부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슴을 사육하고는 있지만 50-1백만두 정도만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최대 녹용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경우 가장 용이한 수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공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3) 환경친화적 축산

가축은 사람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갖은 제약이 이미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주요가축인 소, 돼지, 닭 등도 이러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를 장담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사슴은 야생의 생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덜 가축화된 축종으로 인공배합사료를 먹이지 않고도 사육이 가능하다. 분노 배설량이 타 가축에 비해 현저히 적고 조사료 위주의 사육으로 분노가 자연스럽게 토양에 흡수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 국토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잘 활용하면 토양오염을 시키지 않고 고단백 육류와 녹용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축종이 될 수 있다.

4) 사슴고기의 활용

우리나라는 사슴사육의 최대 목적이 녹용생산에 있지만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녹육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녹육은 고단백 저콜레스테롤의 알칼리성 식품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녹육 섭취를 보편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슴고기 전문식당이 최근 들어 생겨나고 녹육을 이용한 중탕가공제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어 녹육이용 확대에 따른 양록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양록축협은 최근 농협중앙회에 사슴고기를 이용한 육가공 개발을 의뢰함은 물론 부위별 정육 포장해 일반 농협공판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녹용과 함께 양록 주요생산물로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양록산업 발전방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양록산업

은 어느 축종보다도 발전가능성이 큰 미래의 주요축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록업 종사자의 피나는 노력은 물론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소비자의 국산 양록사물에 대한 신뢰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삼박자가 잘 조화되어야만 양록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몇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업화·규모화·차별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록을 주요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업으로 양록에 종사하는 농가수가 늘어나야 한다. 양록업은 사육에서 수확,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장주가 직접 나서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발전을 이루어감에 따라 이들 단계가 분리되어 전문화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업농가만이 올바른 양록업을 영위하고 소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소외됐던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전업 양록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선택할 것임은 당연하다. 또 양록업 장기발전대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전업농가를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규모화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우리 농가당 사슴 사육두수는 평균 12두 정도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농장경영계



획 수립, 생산비 절감, 혈통개량, 생산물 홍보 및 판매 등 합리적 경영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규모화의 기준은 그 동안 사슴품종에 따라 변해왔는데 대략 꽃사슴 3백두, 엘크 1백두 정도를 하한선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차별화는 본격적인 국제경쟁 무대에 뛰어들게 된 한국 양록업이 택해야 하는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넓은 국토와 사계절 푸른 조사료를 섭취할 수 있는 뉴질랜드 등과의 가격경쟁은 무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산림내 사육이나 부존사료 활용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육환경 및 사료를 활용한 품질차별화에 최대의 승부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차별화 방안으로서는 지역별 양록 단지화의 차원에서 산림내 방목사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상태에서의 녹용을 생산해내는 것과, 약초 및 약용관목류 재배 이용, 산야초 및 자연산 수목류를 재료로 한 조사료 대량생산 이용 등이 꼽히고 있다. 모든 방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양록인들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들로서 우선 이를 염두에 둔 농가 개별적 차별화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녹용 및 녹육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화로써 생녹용 이용방안과 냉장육 유통체계 확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양록산물 가공·유통체계 확립

녹용은 앞으로 한방 및 건강보조식품으로 양분되어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녹용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개발이 활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기호도를 고려한 가공제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양록축협이 그 동안 사슴 엑기스, 녹용대보원, 삼록차, 록고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일부 업체에서 녹용 분말 캡셀을 의약품으로 제조 판매하고, 녹육 통조림을 개발하는 등 산발적인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양록축협을 비롯, 현재 추진중인 협회 산하 양록사업단 등 양록인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 육성이 시급하다.

3) 양록인 단합과 생산자 단체의 역할

어느 분야이든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고 확보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양록업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에 산재된 1만여 농가가 필요에 따라 총의를 모으고 일사불란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표성을 갖춘 기구를 구성하는데 한국양록협회가 그것이다. 양록발전을 위해서는 조건 없이 협회에 참여하고 이를



움직여 권익을 찾도록 해야 한다. 협회는 양록인 개개인이 추진할 수 없는 국산양록 산물의 우수성 연구, 생산비 절감 방안 모색, 소비자에 대한 국산 차별화 홍보, 양록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요구 및 제도개선 등의 기능을 최대한 수행함으로써 양록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양록축협은 생산자 단체이지만 그 기능상 협회와는 완전히 다르다. 즉 양록가공제

품 개발, 유통 및 판매체계 주도, 농가 생산 활동 지원 등 산업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들 생산자 단체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토록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록농가의 조건없는 참여가 가장 필수적이다. 참여 없이 단체의 기능이 발휘되길 바랄 수는 없다. 참여 그 자체가 생산자 단체의 기본 구성요건이고 기능수행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사슴의 사양 및 질병관리

김찬규/역촌동물병원장

사슴의 건강관리는 사슴사육에 있어 경제적 손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양질의 생산물을 생산,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슴의 질병은 다른 가축의 경우처럼 빈발하지 않으므로 양록업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사육관리에 임한다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슴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으므로 예방관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외국의 경우는 대개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와 계도를 하고 있으며, 결핵과 같은 전염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나 기생충, 구충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안정적 축산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물인 녹용, 녹혈, 녹육 등이 청정농장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 다음 국산녹용을 수입 녹용과 차별화하여 우수성을 입증시키므로써 양록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도양록**